東亞日報
朝刊 夕刊
本紙夕刊合十二面
編輯兼發行人 宋鎭禹
印刷人 ...
發行所 東亞日報社
電話光化門 一九〇〇

米增船計劃을目標로 新國防計劃樹立?

約五年後의英米海軍에對抗 西太平洋의制海權掌握

【東京電話同盟】 ...

明治天皇御例祭로 天皇陛下還幸

【東京電話同盟】 三十日은 明治天皇의 御例祭이므로 天皇陛下께옵서는 ...

閣議相當히紛糾?

脫落國策을中心으로

【東京電話同盟】 政府가企圖하는 ...

聖地의騷擾深刻化

聖地팔레스티나에서 猶太人對亞刺比亞人의 民族鬪爭은지난 反英運動化하야 事態는 ... 이에 英國政府는 ...

企翁의諷刺

軍擴에盡力하라

毒瓦斯、軍用機는平和의天使 히、무兩獨裁者를賞讚

【런던二十八日發】 ...

改正重要産業統制 朝鮮施行은尙早

單只세멘三業에만限定

【東京電話同盟】 改正重要産業統制法의 外地施行에 關하야 ...

退職積立金法施行 準備調査會

【東京電話同盟】 ...

日蘇漁業交涉 八月上旬再開?

【東京電話同盟】 ...

英蘇借款成立說

總額千萬磅、期限十年

【런던二十九日發同盟】 ...

太田駐蘇大使 卄八日莫府發

【모스크바卄八日發同盟】 ...

政友總務政調 幹部聯合會

【東京電話同盟】 ...

英帝國블록의拘束

印度側脫却코저努力

【東京電】 ...

一般商品의販賣 一手引受會社

目下比島議會에提案

【東京電】 ...

米巡洋艦破損 十名死傷

【샌프란시스코卄八日發同盟】 ...

西班牙叛亂軍 과다마라占據

【파리二十九日發】 ...

參謀將校의人事도 陸相의權限에歸屬

陸軍人事의一元化完成

【東京電話】 陸軍의人事權은 ...

蘇聯邦陣地로부터 滿領에實彈落下

關東軍에서嚴重抗議

【新京二十九日發同盟】 ...

川越大使訪問

高司長代理 張部長代로

【上海二十九日發同盟】 ...

陳濟棠氏의外遊說은誤傳

香港에서療養中

【香港廿九日發同盟】 ...

昭和年度 歲入歲出現計

大藏省發表

【東京電話同盟】 大藏省發表 ...

(單位千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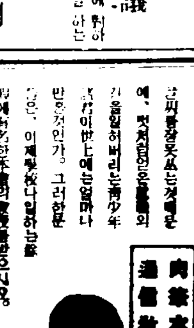
歲入	經常部	一、一九七、三六八
	臨時部	八四七、四四七
	計	二、〇四四、八一八
歲出	經常部	一、二五八、〇八〇
	臨時部	九三七、三七七
	計	二、一九五、四五八

夕刊後市況 【29日】

東亞一短評

新學期開講·新入學生募集
井上英語講義錄
눈과귀로부터 英語를

靑少年諸君!!어번여름에는꼭立身의武器英語를征服하라!
月謝1圓20錢
英語上達 ... 井上英文法 ... 英作文 ...
全六卷 全六卷 全六卷 ...
內容見本進呈
東京市麴町區富士見町三丁目十七
井上通信英語學校

文部省檢定教科書著者 井上千圓先生責任指導
日本ペン習字

函授本位 通信教授
入會規則書
東京麴町富士見町三ノ八三
日本ペン習字研究會

ClibPDF - www.fastio.com

霖雨! 處處에水亂

防築이崩壞、河川氾濫 伊川과各地交通杜絶

降雨繼續廿九日까지三七八미리 家屋浸水、農作에被害

【伊川支局電話】 이천(伊川)지방에는 지난二十三일부터 나리기시작한비가 二十九일 아침七시까지 三七八미리에 달하고 아직도 비는 계속하야 나리는 중인데 방축은 무너지고하천(河川)은 넘치어 이천과 평강(平康) 안협(安峽)、서이(?) 등 각의 교통은 일체 두절되고 二十七일부터는 우편물의 유송도 불가능하게되엇다 二十九일에는 이천읍내에 침수가옥이 二十三호、유실가옥이 一호이요、농작물의 피해도 상당하다

博川에大水亂

長坪、洪景來兩平野에洪水汎濫 水組水路破壞十餘處

【博川】 지난二十一일부터 내리던비는 아직 계속중인데 대령강(大寧江)물은 점점 증수되어 二十七일오후一시 현재로 三十一척에 달하엿는바 평상시 수순은 十척이든것이 오래동안 한발이계속되어 八척으로 감수 되엇든바 一주간 계속강우로 인하야 二十三척이 증수되엇는데 대령강변 대부분이 이해(泥海)화하여 연변三천여정보의 농작물에 큰피해를 끼치는중에 잇으며 박천선(博川線)에까지 남수되어 기사도통치못하고 평양선(平壤線) 도로교통도 두절되엇다 한다.

【博川】 병인(丙寅)년에 대홍수가 잇은이후로는 처음기록을 보게되는 홍수로 평상시수순八척내지十척에서 三十一척 二촌까지 증수되어 일경에는 장평평야(長坪平野)와 홍경래벌(洪景來野) 전부에 범람되어 박천수리조합(博川水組)수로가 파괴된곳도 十여처나되는데 九百여정보의 농작이침수되어 부어상류의 피해가 막대한것을 짐작할수잇으나 아직 자세한것은 알수없다고한다.

家畜家具類 洪水에流下

大寧江上流에서黃海로

【博川】 지난二十七일 아침부터 대령강(大寧江) 상류에서부터 황해(黃海)로 (주야불안) 계속적으로 유질된수는 아직 자세히는 알수 없으나 수천원의 거액에 달하리라 하는데 그중에는 근방에서 보기힘드는 대물도 잇엇고 수상선(水上船)도 떠나려가고 도야지와 닭이며 가구 등속도 적지아니 떠나려갓는데 이루다 [illegible]

家庭不和로 少婦가溺死

【春川】 지난二十八일 오정에 춘천군서면 중나루(中津江) 강에서 배건느든선부가 二十전후의녀자시체를 발견하야 소관 춘천서(春川署)에 이것을보고 전하야조사한결과 그는 춘천읍 소양통삼정 목박승재(朴勝在)씨의 며누리로판명되엇다는바 금년 二十一세의 못다운 녀성으로 결혼한지 불과二개월에 자기친정인 화천군간동면간척리(華川郡看東面看尺里)에 갓다가 二十七일에 도라와 그날밤 그와같이 자살한것으로 원인은 가정불화인듯하다한다.

變態의怪天候로 棉作은凶作

旱魃과日照不足으로

변화증산계의 棉花增産計劃의 순조진행에 따라 경사면서 三十一、二年度 [illegible] 없는 현상이 나타낫다. 고성은 만성부에 남어세된 우리가 [illegible] 一、二년은 저온(低溫)으로 인하야 발아(發芽)가 평년보다 늦어서 [illegible] 성장으로 인하야 우려하지 안을수 없는 [illegible]

東銀重役改替

畢竟原案踏襲

數日에亘한株主懇談會도徒勞

동일은행(東一銀行) 중역개선문제(重役改選問題)를 중심으로한 주주유지(株主有志)간담회는 기보한바와같거니와

一、두취제는 그대로두고 민규식(閔奎植)씨로하여금 취임케 하며

一、상무와 전무는 중역회의 이라 위원회인(委員會)에 위원 섭위원(交涉委員)으로하여 위원회를 씨외 三인으로하여금 부당국과 교섭시키어 승인을 감경이 일주(一獻)해버리고 발언으로 이것을 작二十九일 오후四시 수주유지의 모임을 청하야 보고(報告)하엿는데 이로써 문제는 결국 원안그대로 낙착되고 말엇다.

▲取締役會長 閔大植

▲專務取締役 市川眞次郎

▲常務取締役 成元慶

波瀾豫想의今日定總

그러나 본시 위원회안(委員會案)의 작성당시의 주상도잇든만큼 주주총회는 예상이상으로 대파란을 일오전十시부터 열리는 정기총회의 제씨로 결정계를 터로 금三十일 전개할 모양이 농후하야 일반의 주목을 이끌고 잇다한다.

自動車轉覆

乘客滿載한

【光州】 승객七명을태운승합자동차가 六척단애에서 전복되야개동차 四명만은 부상하엿고 기타는무고하엿다는사실은지난二十六일오후二시반 순천(順天)승원자동차부(昇原自動車部)의 전남제五二一호자동차에 승객七명을태우고 운전수 정우암(鄭又岩)이가 조종하야 곡성(谷城)을 향하야가다가 순천군황전면봉덕리(順天郡黃田面鳳德里)입간(六척)단애에서 전복되야개천에 떠러젓으므로 승객중四명은 중경상하엿으며 기타는 무고하엿다는데 그원인은 방금조사중이라고한다.

아름다운慈悲!

行旅病者爲해據金

집한간이없고 처자도없이 병든 몸을 남의집 추녀끝에 누히고잇는 행려병자를의 가긍한 신세를 생가하고 호읍로 서울한 심속에서 편한잠을 잘수없다는 간곡한 서한과 함께 전주(全州) 무명씨(無名氏)로 부터 현금二十원을二十九일 본사에 우편으로 부탁하여왓다. 본사에서는 이 숭은특지가의 뜻에맞도록 가장적당한용도를강구하는중이다.

一、계다가 유묘(幼苗)시대에 가뭄이 계속되어 고사(枯死)한것을 다시심엇기때문에 발육이불충분한것

一、七월에들어서면서 변태적기후계속으로 일조부족(日照不足) 다습(多濕)의 우려가잇고

一、유충(幼蟲)이 발생되어 피해가불소한것

등이다한다. 작년도에는 초기목적증산이라할만한 二억二천만근(斤)이엇으나 금년은 이러한기때문 가망수없다고 한다.

三線開通을압두고

元山港擴張을陳情

貨物은늘어가고 含吐能力없어 道를經由、總督府에

【咸興】 평원선(平元線) 만포진선(滿浦鎭線) 혜산선(惠山線) 중앙종관철도(中央縱貫鐵道) 등 三개간선철도망이 十三년도에는 완전히 완성되어 개통될것이므로 이철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원산항(元山港)의 중대한 사명의 늙은 어항(漁港) 원산항은 장차 폭주하여올 화물의 함토(含吐)를 도저히 감당할수 없을것으로 새로운 번민에 가슴을알고 잇다.

이리하야 원산상공회의소(元山商議)에서는 과거 평남북도산의 석탄과 금은광석 곡물 소금 목탄 기타 입산물과 동해안의 해산물을 수이출하는 조고만 범위의 빈약한 시설를 가진 원산으로 하여금 전기 三개선철도가 완성되는후라도 꺼리낌이 없이 五十만〃키로톤〃이상의 화물을 자유로 함토할수잇는 우수한 무역항으로 만들고저 각방면으로 애를쓰고 잇서나와 이번에는 또 장문의 진정서를 작성하야 지금부터 원산항의 시설확장공사에 착수하지 안흐면 모처럼 약속된(?)중단항의 혜택도 받지못하고 진남포(鎭南浦)라는 적대항에게 조호 이권을 빼앗기게 될는지도 예측키 어려운것이니 지급히 원산항으로 하여금 확장시설공사에 착수하도록 하여 달라고 하야 지난二十七일 함남도경유 총독부에 진정한바 잇엇다고 하는바 새로 설치된 조선석유주식회사(朝鮮石油)에서 이달부터 작업을 하게 되므로 원유(原油)의 수입이 만[illegible] 三백만원을 돌파하리라고 한다.

貰房얻어주마고 人妻를誘引

賣喫嫌疑로檢束取調

셋방을 얻어주마고 남의처를 다리고 나간사람이 十여일이나 행방을 감추어버린것을 본부가 사면으로 찾아다니다가 발견하야 경찰에인도하며 안해숨겨둔곳을 알아 달나고에소하엿다.

유인혐의자는 서대문정(西大門町)동 도렴정(都染町)五二 김성재(金成載)로 서지난十七일 시내 서린정(瑞麟町)五二 김순덕(金順德)의처최간난(崔干蘭)이 셋방을 얻어려 도라다니는것을 자기가 구해준다고어디로 다리고 간채 이래행방을감추어 버리엇다는것이라 한다.

이에 화가난 본부가 이래김성재의 소재를 탐방하다가 二十九일밤 전기주소에서 발견한 것으로 나자기처는 간곳이없고 김성재도 아직못한다고 버티므로 광화문통파출수로 끌고가서 호소한것인데 소관종로서에서는 김성재가 유인하야 어데다가 팔아먹은것이아닌가하는 의심이잇어 검속취조를개시하엿다。

★그날그날★

(陽七月三十日(木曜日) (陰六月十三日(癸丑)

日出前五、三四 日入後七、四五

月出後四、三八 月入後一、三三

滿潮

仁川 前一、二〇 後一、三〇

鎭南浦 前六、一〇 後六、二〇

釜山 前五、四五 後六、三〇

오늘에天氣

오늘도 비옵니다

장마에傳染病猖獗!

赤痢의太半은兒童

어린이의衛生에注意!

장마철에 다처들면서 전염병이 더욱 창궐하야 지난一일부터 재작二十八일까지에 경성시내에서만 二百五十一인의 환자가 발생하엿다.

그중에는 적리(赤痢)는 더욱심하야二十八일에는 하루에 十六명이나발병하엿고 적리환자는 총수一百八十三명에 달한다고한다. 그중에는주목할만한 현상은 이적리환자의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인것으로서 一반가정의 주의가필요하다고한다.

飮料衛生을確保하라

水道施設補助要求

國庫補助百八十萬六千圓을 旣設處는四十六個所

음료수의 위생서 선량한 민중생활에 음료수가 막대한 영향이 미칠것은 다시 말할것도없이 한생、보건상중대문제이다.

그러나 조선의 상수도시설은 아즉 수미이하야 시설된 현재 전조선의 수도시설된것은 서울외四十二개소로 一의 상수도 시설은 一의四十一百四十一이라하는 것이다. 그리하야 총독부에서는 음료위생의 확보를 기하야 상수도시설가지 의 상수도의 보통 가이없 이 변 하는것과 [illegible]

▲忠北＝×淸州○忠州
▲全北＝○金堤
▲全南＝×光州×木浦
▲慶北＝×大邱○安東
▲慶南＝○方漁津○昌寧
▲黃海＝×海州○沙里院○載寧
▲平南＝×鎭南浦○順川
▲平北＝定州
▲江原＝×春川○江陵○原州○平康

(○는新設×는擴張)

이는 부민의 음료위생상 중대문제로서 그의 시급한 상수도시설이 요구되고잇다.

의 一千二百四十萬九千三十三은 대부분이 음료수로 안심할수없는 우물물을 마시고잇고 얼마전에 경성부에 편입된 신구역의 四萬八千四百十七호의 二十三萬一千七百五十五인도 거의전부가 불안한 우물물을 일상마시고잇는현상이다.

그러나 경성부의 방금 계획진행중인 제二차상수도 확장계획도용지매수문제로 예정대로 공사가진행되지못하고 잇는형편임으로 六十여萬부민의 음료위생은 당분보장되기어렵게 되엇다.

그리하야 경성부에서는 위선신편입구역에 산재한 一千개소의우물의 수질(水質)을 검사하야 음료수로서의 적당하고 부적당한것을 검사하기로 되엇다.

그런과 가정회(町會)를 통하야 불량우물을 개량하는 동시에 적당한곳에 공용우물을신설한터이라는데 그에는 부에서약간의 보조를 수기로 되엇다 한다.

安心못할井水飮者

京城府民의半數

【水道擴張도用地問題로不如意】

時急한水道의施設

서연명의 도시라는 면영을 갖추고 잇는 부민의 수도의 혜택을 받는 부민이 겨우 五十六인중에서 상수도시설이 잇는 부중에서도 거우 五十 [illegible] 경성부 지난만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경성의 상주도의 시설은 넓무도 빈약 수구여서 총호수 十萬七千八百九十九호 一萬八千三百二호의 총인구 二十七萬六千八百四十三인에 불과하다하야 부민의 위생보건상에 근인구 五十一萬五千八百七이바에 四萬八千七百八十七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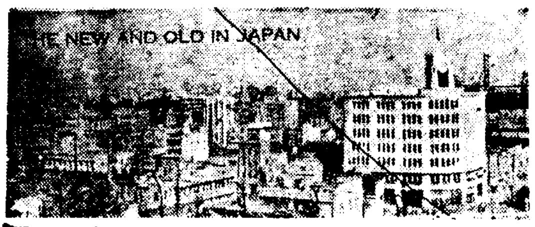
장마중에도 녀자수영강습 원만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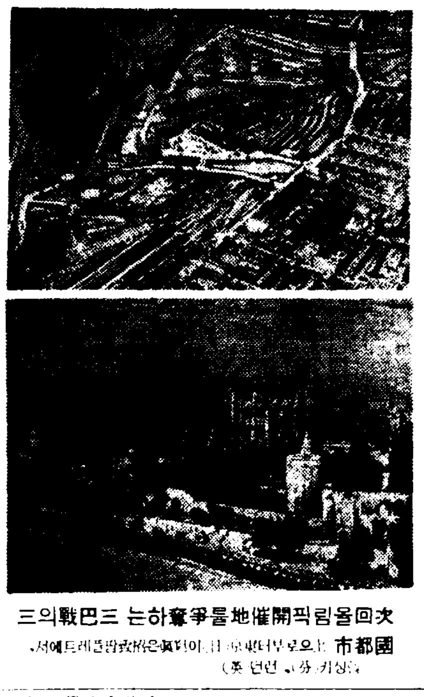
日本? 芬蘭? 英國?

決定은마침내今日

◇世界各國의五十委員出席 豫斷을不許하는爭奪戰

【伯林廿八日發同盟】 大會終了후 시급히 開催地決定의 最大難題인 國際올림픽委員會는 마침내 卄九日午後四時 日本時間卄日午前零時 伯林大學아들론호텔에서 開會式을擧行하기로 되엇다. 委員中에는 라투르伯、副島道正伯、嘉納治五郎氏 以下의各國委員五十名이 出席할터이다. 이委員會는 카이젤하-끄伯이 司會하야 一般의豫想을 뒤엎고 一回投票로서 古色蒼然한 建築인 伯林의 [illegible] 한편 日本은 中國、加納兩氏가잇고 中國代表 王正廷氏도 잇다고 한다.





1940年올림픽은어디로?

次回올림픽開催地를爭奪하는三巴戰의三國都市

(上으로부터東京、로오마、헬싱키)

加奈陀가 突然申請

冬季招致를

【방쿠바二十八日發同盟】 第十二回올림픽開催地問題는日本、英國、芬蘭三國間에 激烈한 爭奪戰이 展開되어 決定은 오는十日에 이르럿는데 加奈陀는 突然 二十八日 第十二回大會 冬季競技를 加奈陀로 招致하기로 決定하야 二十九日 國際올림픽委員會에 提出하야 三十日의 決定을 기다리게 되엇다. 加奈陀의 이突然한 冬季 競技招致는 芬蘭이 아직 冬季大會를 開催할 시설을 못하고 잇는 나라이다. 日本과 美國의 冬季大會를 [illegible]

日本運動엔無影響?

【東京電話同盟】 加奈陀가 第十二回올림픽 冬季競技開催地立候補에 關하야 日本招致委員會의 文部省體育課長은 다음과같이 말한다.

冬季競技開催地決定은 原則으로 夏季競技開催地가 自由로決定하도록 되잇으므로 加奈陀의이번申請은 大會가 承諾하면 모르지만 冬季競技를 加奈陀에서 열도록 하여달라는것이라고 想像된다 따라서 이問題는 大會의 意見은 보고할 것이라 본다. 日本으로서는 別로 큰 影響은 없다고 생각한다.

德川會長激勵電

【東京電話同盟】 二十九日午後四時 日本時間 伯林大學에서 國際올림픽委員會가 열리어 東京、헬싱키 決定을 지을 第十二回大會開催地가 決定될 최후의 날을 맞이하고 잇는 日本側 委員에 對하야 [illegible] 電報를 發하얏다.

決定되면 直時中繼放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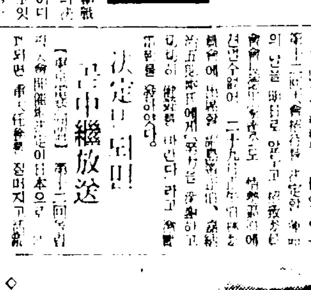
【東京電話同盟】 第十二回올림픽大會開催地決定이 日本으로 되면 東京中央放送局에서 直時 中繼放送을 할터이라 한다.

芬蘭陣伯林에總集結

獨紙는역선宣傳

【伯林二十八日同盟特派員發】 國際올림픽委員會를 開會前日에 앞두고 大會에 參加한 [illegible] 芬蘭代表는 이 大會를 앞두고 理事會를 [illegible] 過去의 [illegible] 日本側의 [illegible]

◇寫眞은 光成軍의 攻擊



光成의後半追擊

仁商에게드디어不利

11—6

中等野球界의 覇權을 爭奪하는 代表 甲子園野球大會(大每主催)의 第二十二回에 朝鮮에서 누가 가느냐를 決定할 最終豫選大會는 京城球場에서 仁川商業과 光成高普의 決戰이 展開되엇다 [illegible]

◇運動場(甲子園)

男女中等籠球

五部對陣決定

日本籠球協會、朝鮮支部의 全國中等男女學校籠球大會는 三十一日부터 三十一日까지 [illegible]

◆女子部

【第一回戰】

進明－京城女商 卅日前十一時

【準決勝戰】

第一－釜山女商 卅日後四時半

梨花－同德 卅日後五時半

◆男子高普部

【第一回戰】

二高－光成高普 卅日午後

【準決勝戰】

京商－同勝者 卅日後三時半

◆男子實業部

【第一回戰】

【準決勝戰】

京商－同勝者 卅日後二時

◆男子師範部

【準決勝戰】

京師－同勝者 卅日後一時半

◆男子中學部

京中－[illegible] 卅日後六時半

光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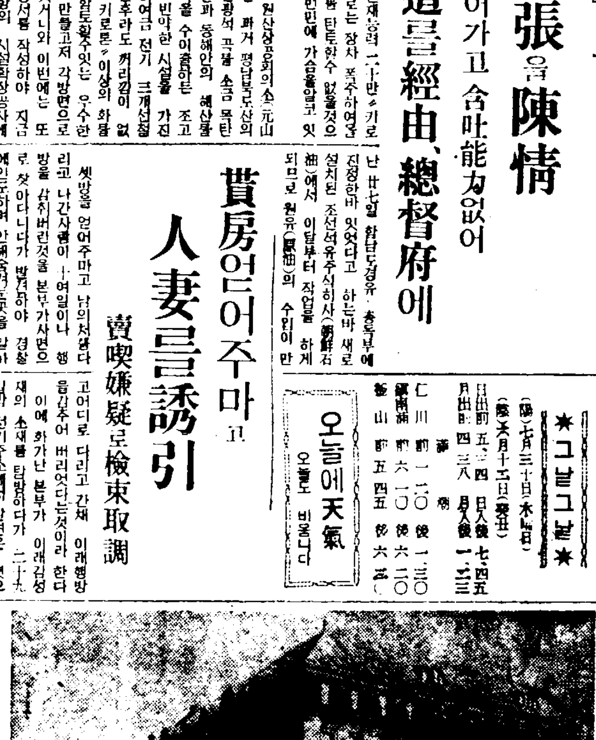
仁商(先)

光成	000 600 103 ＝11
仁商	000 013 101 ＝6

오늘의運動

▲野球 中等野球大會豫選 京城球場

▲籠球 全朝鮮男女中等學校籠球大會



◇寫眞은全鮮東京野球場이오?

兩氏奔走着着奏效

【伯林二十八日同盟】 大會 [illegible] 嘉納治五郎氏 日本의 [illegible] 兩氏는 日本을 支持하야 [illegible] 되엇다.

社說

東一銀行幹部 改善問題

北中形勢變轉

宋哲元氏의統制力喪失로 南京派勢力擡頭傾向濃化

王克敏氏北上活動

(寫眞은 王克敏氏)

上半期 五大國貿易

總額增加나貿易惡化

獨逸政府 敎皇廳에接近

英國下院休會

英國豫備兵團 新組織內容發表

北韓鮮國境方面 電信輻湊緩和

今年地方起債 九百萬圓突破

▽一割이激增

七月中旬臺灣米移出

中繼放送

蘇聯의昨今 【八】

陸軍省新聞班長 秦彥三郞

政策 / 關係 / 蘇聯 / 最近

銅像建立

對伊制裁이犧物

漫畫世界

人民戰線內閣의恐怖

內外短信

滑五呎跣下脫獄

義敎延長에關하야 地方實情實地調査

『競猫』競技盛行化

新刊紹介

▲月刊ロシヤ 八月號

▲小學四年の舞踊

▲音樂の書

▲新日本民論

▲義如此野覺發

▲人生의香氣

▲鷄の研究

▲東洋實業

▲聖火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年期藥

百補丸 一劑十圓

東京堅志町 平和堂

博士의創製 毛生藥

毛生藥 후미나인

●田中醫學博士方劑

●說明書無代進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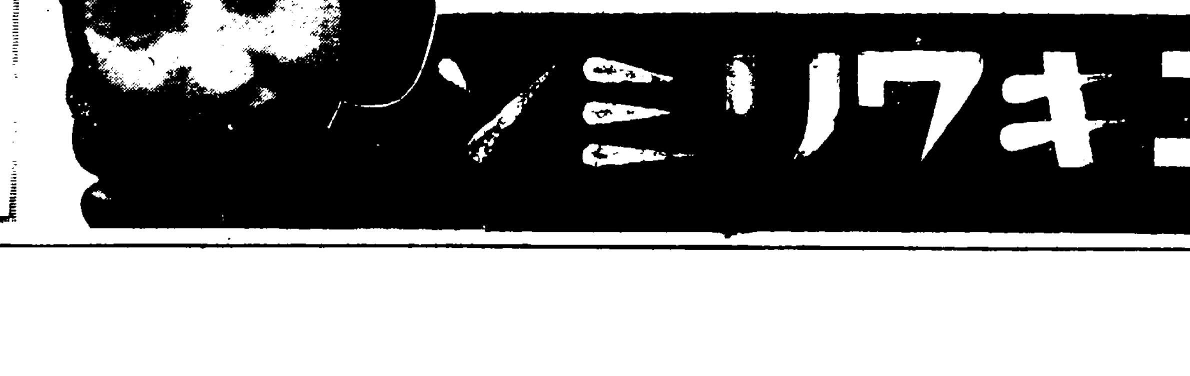
(全國藥店에잇소)

發賣元 東京藥院

第一劇場 怪盜捕縛 / 若旦那春爛漫 / 三〇部隊

東洋劇場 헛수고햇소

團成社 盛粧이라 / 때로니카의꽃다발 / 大學を出た若旦那 / 靑春座公演



ニキビ 油顏に

歐米婦人間에非常한評判인 비타민아스트린젠트綜合美容法!

어느름날에갈나땀띠 일말기미업시에

더운여름은 이美容法을活用할때외다

기막히는奏効美容法

普通의化粧水나 單純한藥用은아니다

洗顔後에 日中의땀흘칠때, 浴後에, 面刀後에

잔주름, 주근깨의보기실흔살도손질如何로빛갈히고젊어저

ユキワリ 顔劑

ユキワリ洗顔クレーム 定價

地方論壇
迷信을全廢하라
扶安 一記者

오늘날 科學이 發達된 오늘날에잇어서 아직도迷信의迷夢을 깨지못하고 여러가지 病魔의 넘쇠쓰가 잇을때에 藥을 쓰지안코 巫堂을 불러서 굿을하는것을 보는바이다 예날부터 傳하여오는 迷信의迷夢은 바리지안코 가지고잇으나 科學的文明이 옛날이나 오늘이나 갈혼가? 地方住民이여! 迷信을 어찌 屬行인줄 들으는가? 아모러한 効果보다도 精神的 物質的으로 莫大한消耗를 하여가지고 白晝에다가 貴重한 財物을 부치고 左往右往하며 風水로 일삼다가 家産도 蕩盡하는 수가만타. 그러고 開明하엿다는 家庭에서 賽神, 또는 扶斯等에는 무당을다려다가 저녁에 始作하면 翌日아침까지 하로밤을 高聲으로 亂打하니 참 한심한일이다. 그런다고 病이 完治되는가? 온갓迷信的行動을 다하여보고 結局醫師에게 病房을 찾어가서 醫藥治療를 하려하니 時期는 이미 늦엇으니 不得已 죽고마는것이 한두사람 아님을 생각한다 우리扶安으로 말한다면 일마나 迷信을 崇拜하는지 卜術무당들이 相當히 居住하는모양인데 그런에도 不拘하고 他處에서 巫女들가 들어오게되면 不過五、六日內에 屢拾圓式을 가저가며 무당은 晝夜不休로 亂叩鼓하며 祈禱하니 附近에사람들이 잠인들잘수가 잇는가? 扶安住民 諸氏여 迷信을 全廢할지어다! 科學的 思想이 發達된 오늘날에 迷信을 崇拜하지못하고 허다이는人士가 만타함은 크게 遺憾되는바이다. 迷信이 가득찬 扶安住民諸氏여! 迷信에 拘束을 받는人士여! 速히 反省이하는때 잇을지어다.

群山精米業은거의休業
千餘從業員生路漠然
家族까지 合하면 五千餘生靈
正租出廻의杜絕로因해

【群山】 軍山개항도시인군산항을 유리시 가장크의웃재가 큰 크대정미소는 최근까지 간신하게나마 작업을계속하여오든바 얼마전부터 휴업을하게되엇다한다

이와같이 휴업하게되는 이유는 정조출회가 두절된관게라 하는데 가등(加藤)정미소만은 아즉까지 간신이 계속하는모양이나 그외조선(朝鮮)화강(花岡)장전(長田)등 三대정미소는 월주부터 이미 휴업이엿고 전기四대정미소에 조업하는 노동자는 무려 一천여로 수하나그들의가족까지 합하면 五천여명의 생령는 막연하게된동시에 설상가상으로 비상히 앙동하는 一반표가 는그들의 생활을 더욱위협하는현상이라한다

그리하야 전기四대정미소가 완전한 작업을계속하는때는 十월경이라야한무앙이니 생활상 아무보상이없는 그들노의노동자들은 이제앞으로 三개월간을 어떠게지날것인가 실로 군산노동계에중대문제라한다

兄弟愛에犧牲된
두少年의慘死屍
집이가난하야 게 잡으려갓다가
釜山牧島海岸에漂着

【釜山】 지난二十七일정오에부산목도봉래(牧島蓬萊)해안에어린아이 의복이표류하고잇는것을 발견하고 목도주재소에서 파출소순사가 부근의 청년들의 응원을얻어부근해변을 예수색하야 오후一시반경 바다갈운데 표류하는 시체를발견하엿는데 익사체는 영선정(瀛仙町)一七七번지 성평호(成平鎬)의二남 이영(二永)(十二)과 三남영삼(永三)(十)로서 두소년이 한끼번에바더의 고혼이된 이유는 집안이 빈곤하야 그날에 게(蟹)를잡으러바다가에 나갓다가 한아이가 물에빠지자 그것을 구조하젓다고형제애의 희생이되어 둘이모두익사한것이라고한다

身勢悲觀코 鐵道에自殺

【鎭永】 지난二十八일 오전六시四十七분제二四〇호열차가 신영역을 도착할지음에 진영리여북부(鎭永里餘北部)대선로에서五十세가량되는 중년노인이 무참히도자살을하엿다에데 근처사람에게들으니 그는 빈한사람으로서그날그날을 사러오다가 자기의신세를비관하고 그와같이 자살한모양이라는데 진영면사무소에서는 공동묘지에 가매장하엿다한다.

産兒를暗埋 【東萊】
지난二十八일에 경북군위경찰서사법실(東萊警察署司法室)에서는 二十여세의 소부(素婦)를 체포하여다부고 엄중한취조를 서둘한다는데 그는 경북군위군소보면대흥동(東萊郡召保面大興洞) 홍하수(洪)의 (假名)(●)처윤영순(尹舜)(假名)(●●)으로서 대판시동성구(大阪市東成區)에서 자기남편인 전기 홍하숙과 동거하다가 작년六、七월경에 전기대흥동(大興)

貧困에 쫄녀 突然縊首自殺 少婦
【醴泉】 수련도 가지가지 빨래하다말고 집에 들어와 아무도없는틈을 나서 끗가는 챗대에 목을 옭아매고 양은채로 목숨을 끈어버린 꽃같은 시악시가 잇다.

그는 영주군 봉현면 대촌동(榮州郡鳳峴面大村洞)에 거하는

全朝鮮庭球
羅州에서開催

【羅州】 전남 나주유학생 친목회(羅州留學生親睦會)에서는 지난二十七일에 간부회를 열고 토의한결과 중앙(中央) 조선(朝鮮) 동아(東亞)삼지국 (東亞羅州支局)후원하에 래八월十六일에 연중행사인 제一회 전조선 개인정구대회를 개최키로 하고 정기총회는 래八월五일로 결정되엇다는데 피선된 여원들은 벌서부터 그에 대한 준비에 매우 분망중이며 사지에서 다수한 선수가 참가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綠陰의道 釜山溪谷

新築移轉된舊馬山驛

김보전(金寶典)씨의 둘재딸 김옥계(金玉桂)로서 본래 집안이 가난한중 남동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다만 딸두형제가 잇엇는데 형되는 여자는 벌서 출가하엿고 등음로 늙은 부모만 두고 남의집에 출가하기도 힘들어 더럽사위를 두고 살아왓엇는데 지난二十六일 아침에는 자기 어머니와가치 빨래하러 나갓든바 먼저 집으로 들어와 그와같이 방안에서 목을매고 죽어버렷다는데 때는 오전 열시경이라하며 풍기시내 삼남의원(三南醫院) 이윤경(李允

農事試驗場의
蒸發器等盜失
총독부 의뢰의 통계도 대지장
贓品은벌서破壞?

【大邱】 농사시험장(農事試驗場)에 가장중요한 기계인 수분증발기(水分蒸發器)와 기타여러 종류의 물품을 도난당하야 당국자의 비상한 낭패기색를 보이고 잇다

廿六일밤 부외 원대동(院垈洞) 농사시험장에서는 동력용전선(動力用電線)주백척과 수분증발기 一개와 시가 백여원어치와 수분증발계량기(計量器)등을 어느자에게 도난당하엿다고 한다. 이의외의 도난사건에 의하야 동 조선총독부에 서 의뢰하여온 서부조선과의 비교대조의 수분증발조사통계가 불능하게되어 一시중지 상태에잇다고 한다.

一방 대구서에서는 범의자수명을 인치취조한결과 그의 장물은 벌서 산산히 파괴하여 각처에로 팔아먹은것으로 자백 하엿다고한다.

(前略) 聯가 급거출장하여 사체를 검안하엿다고한다. 그런데 잇어서는 혹 정신이상인가 의심도하나 분명도 생활의 빈곤을 비관함이 아닌가 한다.

松隅庭球延期
【松隅】 감암정구구락부(甘岩庭球俱樂部)주최 제二회전조선개인정구대회(全朝鮮個人庭球大會)는 지난二十六일당지 송우정구구락부(松隅庭球俱樂部)의 후원을얻어 송우구락부코트에서 개최하려든바 일기가부조하야 여의히대회를 시행치못하고 오는八월二일로 연기하엿다는데 각지여러선수에 다수참가를바란다고한다.

汶山의防護陣인
堤防工事遲遲不振
연래의홍수에쪼들리든끝에
昨今長霖으로市民恐怖

【汶山】 二十八일 오전十시현재 파주지방의 강우량은 一百六十미리九로 가는데 홍수사태가 나서 보다큰피해를 가저오리라하야 五萬군민은 비끌이기를 왈망하고잇는데 문산(汶山)의 생명선이라고할 제방회조는 다년의 현안이해결되어 총공비 一만五千원으로 지난三월二十一일부터착공되엇는데 이제 우기(雨期)전에 준공을 보와야할 이제방공사는 지지하야 아즉도 준공을 보지못한터로 금후 임우가계속되여 임진강(臨津江)이 범람하게되면 을축년(乙丑)후의 처음보다는 작년홍수보담 가일층피해가 막대하리라한다. 문산시가전등의위기일발에서 요행이 구원된 문산시민의 작년여름의 기억은새로운터로 소낙비가몇시간만 계속쪽주로보아도 공포에떨고잇는터이라한다.

酷暑에狂亂의慘劇
尺餘의銳利한食刀로
靑年이老人慘殺
무슨원한이 그를그리하엿든가
盈德警察에犯人은自首

【大邱】 광마끝에 혹서는 일간의 발작적심경을 첨예화시킨다. 廿七일 오후七시경 경북영덕군영덕면구미동(盈德郡盈德面九美洞) 신달기(辛達基)(●)는 기리 一척이 넘는 식도를 가지고 동네앞에 밥을매고잇는 동리 황계상(黃啓上)(●)을 등뒤로부터 갈끝이 보이지안토록 나려질너서 무참히 현장에 즉사케하고 유유히 현장에서 다나나 소관주재소에 자수하엿다 한다.

그의원인은 절대알수없으나 가해자는 평소에 비교적온건한 청년으로서 그같이 참혹한 행동을취하게된것은 상당한 이유가 잠재하여잇는 모양이라고하야 영덕서에서는 철저조사중이라고 한다

(前略) 즉시 용변의 처치를 하엿으나 아모효과없이 사망하야 오죽하나인 독자를 의지하고 살아오든 양친의 우는양은 참아볼수없더라 한다.

水泳하다가 獨子가溺死
【金堤】 귀중한 자식을 둔이들의 주의할 여름철! 지난二十七일 오후一시반경 전북 김제군만경면(萬頃面)읍내 수리조합옆 수문가에서 당지 장재원(張在元)의 오죽 하나인 독자 장만트(張晩

酒幕에가서
弄談끝에殺人
가해자는 체포, 시체는해부
河東郡花心里의慘事

【河東】 지난七월二十六일밤 경남하동군하동면화심리(河東面花心里)에사는 김봇(金某)(●)는동리 몸티미 서정만(徐正萬)(●)의 주막에가서 그안해에게 술을달라하며 농담을걸엇든바 서정만은이를분히여기어 서로 말다툼을하는끝에 서가 주먹과 정종병으로 김을패고 발로차는등하야 빈사상태에 이르게되엇는데 얼마지나지안허서 드디어 죽고말엇다한다.

이소문을접한 하동경찰서(河東署)에서는 가해자를 체포하고서 그이입에 사법계원과 공의가현장에가서 시체를 해부하엿다한다.

五貫餘의둥굶은
裸體屍漂着
자살? 타살? 원인이 미상
靈光七谷里海岸서

【光州】 자살? 타살? 탈불(脫佛)을 몸에감은 괴시체가 전남해안에 표착되엇다는 사실! 지난二十六일 오후六시四十분 영광군홍농면칠곡리(靈光郡弘農面七谷里)해안에서는 나이三十여세되어보이는 조선인남자가 몸에탈불을 입어매인 시체로 표착되엇든것을 지나가든사람이 발견하야 경찰에 신고하엿다고한다.

그런데 그시체는 옷을벗거벗엇는데다가 五관중량의 탈불을 묶

鐵路에置石
列車가衝突
인명에는아모 피해가없어
東海線永川附近서

【大邱】 廿六일 오후九시경 대구발 포항행(浦項行)열차는 영천역(永川驛)부근을 통과할지음 어느자의 소위인지 약八관가량이나 되는 돌을 선로우에 두엇든것으로 급주하는 열차와 맹렬한 충돌을하게되어 기관차전부(汽罐車前部)가 파손하엿으나 다행히 사람의 사상자는 없엇다고 한다.

竹山電燈料引下
利長電氣會社서

【竹山】 이천읍내(利川邑內)에 잇는 이장전기회사(利長電氣會社)에서는 시대의 요구에 의하야 이천(利川) 죽산(竹山)장호원(長湖院)용인(龍仁)등 각영업구역에 전등료를 인하코저 계획중이든바 근근실현을 보게되엇으므로 七월분부터 인하실시하기로 되엇다는데 신구료금의대조를보면 아래와 같다한다.

燭光	舊料金	新料金
一〇	一、〇五	、九四
一六	一、二八	一、一四
二四	一、六〇	一、四四
三二	一、九二	一、六九
五〇	二、五七	二、二四
一〇〇	三、九〇	三、三四

百濟陳列館
增築을計劃
扶餘郡 古蹟保存會에서
總工費는七千圓假量

【扶餘】 충남부여(忠南扶餘)는 함은 기보와 같거니와여주(驪州)백제고도(百濟古都)의 논산(論山)과 안성(安城)평택(平澤)면양(沔陽)등 가지로부터 八개단체 百여명역사(歷史)를 갖은곳일뿐더러 우리조선八경중의 하나인 명승지로 선수가 참가하야 二十五일 오후서 사시절 一반탐승객(探勝客)의 한시 부터 폭우와 혹서중임에도 발자최가 끝일날이없으나 아즉도 불구하고 맹호같이 날뛰는 선수백제유물(百濟遺物)의 진열관(陳列館)들의 百렬한 쟁패전은 계속되어이 협착하야 지방인사는 남쪽의(●)二十六일 오후七시 三十분부터 전회 우승팀인 안성군대 죽산군과 최후의 우승쟁패전은 문론하고 一반 탐승객의 지대한 유감을 늣기게되든중 다행이 당군고적보존회(古蹟保存會)의 끝임자그대로 맹렬분투하야 二대二로완없는 활동의결과로 총공사비 七강이 대치되든중 안성군은 불니천원을들이여 현재의 진열관을증를 사사로인지 몰연 기권이라는비장한 선언을 하엿으므로우승축할예정으로 지난二十八일에 동은죽산군에도라 갓다한다구청회의실에서 군내각면장 회의까지 열니게되엇다는바 공사착수는 금년九월중에 될터이라한다.

二期築港은樂觀이나
錦江鐵橋는遲延?
기성위원의재차상경도필요
佐藤群山府尹歸任談

【群山】 군산부윤 좌등(佐藤)씨는 지난二十一일에 여러가지 용무로 급격히 상경하엿다 함은 기보와 같거니와 씨는 二十八일에 귀임한바 그의 귀임담에의하면 일주부터 각기관에서 기회잇는때마다 요로에 진정청원하여오든 제二기 축항과 금강철교 가설 문제는 금번상경시에도 각요로에 간원한바잇엇는데 제二기 축항은명十二년도부터 예산에 계상할것같이보엿으나 금강철교문제는 아즉도 시기가 상당이 요할뜻한즉 기성위원치에서 또다시 상경진정하는것도 조흘뜻하다고 운운

本報支局後援下
竹山蹴球大盛況

【竹山】 죽산축구구락부(竹山蹴球俱樂部)주최 제二회 전조선축구대회(全鮮蹴球大會)를 본보 죽산지국 후원하에 개최한다

數十鑛夫가作黨
監督을毆打코罷業
원인이미상으로경찰이조사중
南陽重石鑛의不祥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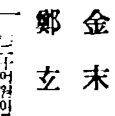
【水原】 수十명의 광부(鑛夫)가 작당하야 감독에게 폭행을 가하고 파업까지 단행한일이잇다. 수원군 음덕면(水原郡 陰德面)에잇는 남양중석광(南陽重石鑛)에서는 지난二十四일경 동광에서 일하든 광부수十명이 작당하야 감독에게 폭행을 가하야 부상을 입게하자 소관 남양주재소(南陽駐在所)에 알리게되어 겨우 진정되엇다는바 원인은 아직 조사중이라하며 수十명의 광부는 전부 파업까지 단행하야 일을하지안코 잇다는데 소관 수원서(水原署)에 서는 지난二十八일 광주이사각관계자를소환하야엄조중이라고한다

貨車가轢兒 【驪州】
지난二十四일오후四시경에 전남 八七八호화물자동차를 운전수 박현봉 (朴鉉鳳)이가운전하여령암(靈岩) 서강진(康津)에 갓다 돌아오든중강진서성리에서 앞길을 횡단하는 동리 김성만(金成萬)의 三녀아지(阿只)(●)를 치어즉사 시켯다는데 동운전수는 강진서에서 인치취조중이라한다.

그런데 최근자동차사고가 빈발하는 중대개 三、四세된 어린아이의 사상이 만흠을보아 一반가정에서도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보호에주의를 하여야 한것이라한다.

南朝鮮庭球大會
八月十六日부터

【河東】 경남 하동(河東)에서는 매일신보 경성일보지국 주최와 영흥보구점 중앙 조선 동아지국 후원하에 오는 八월 十六일에 남동공보교 코트에서 제一회 남조선 개인정구대회를 개최한다는데 만히 참가 하기를 바란다한다


密林
(216)
金末峯 作
鄭玄雄 畵

깨여지는 조각(四)

밤 한시가넘어 오뿌마의 방을 나온 상만은 양주(洋酒)진을 몇고뿌 먹은뒤라 혼혼히 기분조케 취한몸을 자동차에 올라탓다.

「三十만원이 잇으면 二十어원이 들어온다? 파연 ××나라는 그나라 노신들의 손에 잇단말야 하지만 오뿌마란 여자는 확실히 천재야 어느사이에 그러한사람들과 교제를 하엿는고 현직으로 잇는 고관(高官)에게 서 천린을 다받고……그러한 오뿌마가 나를위해서 헌서를 써다? 하하……」

그는 ●눈러에 비최인 풍으레 한 현세조케 빗나는 자기얼굴을 바라보고

「미남자란 이런때 값이 잇는거야 하하……」

이러케 중얼거려보니 그는 천하에 둘도 없는 행복을가진 사람은 오직 자기한사람인것 같이 생각이 되엇다.

「三十어원이 들어온다? 상정(三井) 삼릉(三菱)의 대재벌파맛서는 재력이 아니나 만약 그러케된다면……二十어원이 十년후에는 보자 이자 하더래도……아니 투자(投資)를 해야만되……조선의 처녀림(處女林)은 물론만주 평야로 진출해가지고 그동으로 바라보나 서으로 바라보나 아규 입망무애의 대평원의 지주가 된다면? 그러고 또 남양군도의 미간지까지 전부점령해가지고 조선의 빈민을 말끔 이민을 시켜도 조코……그러케 된다면 우리하세란 놈도 애비와는 달라 한번 실컷 뽐내볼수가 잇겟고……」

「다왓습니다」

하고 운전수가 손잡이를 노고 뒤를 도라본다.

「응? 벌서 다왓서?」

「네 리산앞 큰길까지 다왓읍니다」

운전수는 상만이 조흘고 잇섯나 오로라에는 가지안엇다. 그보다도 점점 상만의 발끗이드기잡 대문에서 멀어지는것을째닷는 요시에는 최근에와서

「무엇때문에 살고 잇는가? 하세의 유모로?」

하고 혼자 중얼거리는 일이 각금 잇섯든것이다.

「유모? 하하하 좃치 유모관계 좀신성한 직분요? 자유 모 얼금……」

상만은 경마장에서 버려오든오천원을 호가스럽게 요시에앞에내던젓다.

「엔돈이 이러케 만하요?」

요시에는 실지불리는 얼골로 지전을 헤면서

「내지(內地)로 도라가라는 비가지 드럿나보지요?」

하고 방그래 우섯다.

「노－노! 천만에 가다니 어딜 것이다」

그러케 짹 하세를 행복스럽게 만들어 노고야 할테니 상만은 잠이 드러잇는 하세겁으로 가서 그머리를 쓸어주고 그니마에 입을 맞추고 반쯤 열고자는 손을 쥐어보고

「요사이는 작구 작구 크는가봐 허－그참 아이를 자라는게란신통하거든」

혼자 말 같이 하고

「어데 엄마가 한번 안아주어야지」

상만은 자는아이를 쓸엇시 안아무릅위에 올려노코 그뺨에다 입을 무찍엇다.

요시에는 벌건이 상만을 바라보면서

「여보 저 남자를 미워해야만되나, 사랑해야만 되나」

속으로 생각하고 한숨을 삼키는 것이다.

「여보××정으로 돌아 주오 나지금 그리로 가야만 되겟소」

「네－」

운전수는 이상한듯이 백밀리를 몇번이나 드러다보고 차머리를 돌려 통대문을 향한 큰길로 속력을 노앗다.

「자정이 가까웟다니 어쩌진 말야 난지금 내아들을 좀 가보야지 벌서 한밤이 되엇군츠……돈을 보면 요시에는 기뻐하것다 흥!」

상만은 맘속으로 중얼거리고 조용리는 고개를 못순에 기대엇다 어깨 상만은 요시에의 집 정문에서 두어번이나 빠를 눌럿다.

할멈이 나와서 문을열고 상만은 오래간만에 요시에의집 이층으로 올라갓다.

종종대까지 마조나온 침의바람의 요시에의 손목을 한번 잡아 흔들고

「미안하게 됏소 그사이너 무쌍 패서……그래 하세는 잘잇소?」

「네－ 도련님은 안령하십니다 도련님 보시라 오셧지 어데유모 노릇하는 저야 안중에잇겟서요?」

한마디 톡쏘고 입을 빗죽하는것이다 지난겨울 오뿌마와 다토고 온 요시에는 다시 그날밤이래로 실이 지정까지 알엇든것이다.

「그야 만주도 좃코 남양(南洋)도 좃구 동경 한복판도 좃구……」

「지금 어데서 오시는길야요?」

하고 약간 눈섭을 찌푸려 듯엇다.

요시에는 상만의 전에없이 큰소리를 하는것이라던지 한거번에 오천원을 주는것이라던지 어째정체 모를 사건이 돌발된것 같애서 요시에는

「나? 손님들과 여긔저긔서 마시고 왓지」

「그럼 이돈은 하세 어른으로저금을 합시다 그런데 나좀 보서요,」

요시에는 상만의 무릅앞으로한거름 닥어앉으며

「그 오로라엔가 하는데는 너무 자조가지 마서요 엇전지 그마담인가하는 녀자는 무슨음흉한 비밀을 가지고 잇는것 갓지안아요?」

「엽러 말아요 모－든 것은 내게다 맛게요 내 무슨일이엇단

第三回 全朝鮮個人庭球大會
◇時日 八月九日午前九時
◇場所 松汀驛前 三和商會코－트
◇申込金 每一組 一圓也
◇申込期限 八月八日까지 三和商會東亞支局
◇賞品 一等優勝旗及現金十圓 二等現金五圓也
主催 三和商會
後援 東亞日報松汀支局

第一回 全朝鮮蹴球大會
◇時日 八月一日二日兩日間
◇場所 蔚山蓮池그라운드 (雨天不拘)
◇申請期日 七月三十日
主催 蔚山體育會
後援 中央、朝鮮、東亞各支局

地方論壇

醫療機關을設置하라

甲山支局 一記者

목말은 사람은 물을찾고 病든 사람은 醫師를찾는것만은 當然한理致일것이다. 甲山郡 雲興面 東新里는 面積 四千九百十九町步이며 戶數 二千戶에 人口 六千百을 算하는 火田村落이다. 火田民들은 一般生活水準에서 除外되어가지고 生活을 찾어 森林에 출장하야 범의소리가 들리는 山꼴작이에 들어가 보이는것은 나무사이로 빗이는 푸른하늘뿐인 온갓 고락을 다 겪으면서 火田을 開墾하야 겨우겨우 連命하는 同胞가 …

平南一帶에 連五日降雨로 農地에生氣充滿

◇河川犯濫, 交通도杜絶 繼續降雨를憂慮

【平壤】 오랫동안 가물로말미암아 농가는 물론이매 도회지 시민들에게까지 다대한 우려를갖게하든 혹한의하늘이 평남一대에 二十六일부터 비를내리기 시작하야 二十八일까지 폭주하야 병난가지엔 생기가 충만하야젓다. 二十七일 하루동안에 나린비가 중화(中和)평장으로 평남가지에 약一백미리씩의 강우가 있어 … 앞으로 비가계속된다면 도리혀 농사에피해가 있을것으로 벌서 상마를염려케하고있다. 二十八일 오전十시 현재의 각지우량은 다음과같다.

▼平壤 ○六미리 ▼鎭南浦 八三미리 ▼順川 九五미리 ▼江東 ○五미리 ▼价川 九四미리 ▼殷山 九一미리 ▼价川 五四미리

연일강우는 마침내 평남벽지(僻地)의 하천(河川)을 범람케하야 二十八일 아침에 이르러서는 … 사지의 교통은 전부 두절되어 一반은 대단히 불안중에 싸여있다 한다.

方峴一帶엔水國化 農作物被害가不少

침수가옥만이 수十호에 달해 各地交通까지도杜絶

【方峴】 평북 방현지방에는 오래동안 한발이 계속되다가 지난 二十七일 오전부터 비가 시작되엿다. 그러다가 二十八일에 이르러 돌연히 폭우가 쏘다지기 시작하야 오후七시까지 끊임없이 내리어 침수가옥이 수十호에 달하엿으며 내양동(內陽洞) 대안동(大安洞)등 금년 농형은 풍년을 예상하고 잇든데 수국화(水國)로 … 농작물 부근은 …

田畓의松濤園風景……(永登浦特派員撮)

沙里院支局後援의 全朝鮮籠球大會

【沙里院】 사리원 체육회(沙里院體育會)주최로 제五회전조선농구대회(全朝鮮籠球大會)는 오는 八월七일에 사리원에서 개최하기로 하엿는데 금년은 예년에 비하야 좀더 성대히 거행하고저 벌서부터 간부제씨는 재반준비에 분망중이라는데 동대회의 규정은 다음과같다 한다.

▲期日 ▲時日 八月七日 午前十時半正刻 ▲場所 沙里院鐵道學校 코-트 ▲申請金 二圓(中食及타올―부提供) ▲申請期日 八月六日午後十時까지

▲綱領 一、本大會는 籠球技能과 體育精神을 奬勵함으로써目的으로함. 一、本大會는 西鮮籠球選手權을決定함. 一、本大會는 每年夏期에 擧行함.

▲規則 一、本大會는 優勝팀에게 優勝旗와 副賞及 旅費補助는 二十圓 次勝팀은 旅費補助로 十圓及銅賞. 二、優勝旗는 優勝팀에서 次回大會까지 保管함. 三、參加選手는 五人 候補三人 監督一人. 四、一次申請한팀에는 變更함을不得함 但 抽籤前에는 此限에不在함. 五、抽籤은 八月六日午後十時 本大會委員及 各新聞支局長立會下에함. 六、競技開始十分前 出場치아니하는팀은 棄權으로 認定함. 但、審判員과 相對便에 承認을 得한 時는 此限에不在함. 七、本大會綱領規則及 審判의命令에 違反하는時는 退場을 命함.

天才少年提琴家 白高山獨奏會

八月一日白氏紀念館서 記者俱樂部主催로

【平壤】 "바요린"을 옆에 끼고 평양에 돌연히 나타난 천재적 소년제금가 백고산(白高山)군은 금번 평양기자구락부(平壤記者俱樂部)주최로 백군의 바요린독주회를 열어 주기로 하엿다. 백군은 부내 서성리(西城里)七二 백명신(白明信)씨의 둘째아들로 작년 여름부터 가르침을 받어 짧은 기간에 묘기에 달하엿고 그동안 상해(上海), 만주(滿洲)등지에 순유하야 그의 천분을 각국인에게 보이엇다. 그러나 고향인 평양을 찾은것은 이번이 처음인 그의 음악가적 천분을 북돋아 주자는 뜻으로 오는 八월一일 오후八시부터 백선행기념관에서 독주회를 열기로 한것이다. 이날 밤에 반주할 피아니스트는 일즉부터 알리워 잇는 평양의 김성남여사(金聖男女史)이며 입장료는 계하五十전, 계상三十전이라 한다. (사진은 백고산군)

獨奏會前날 鑑賞晚餐會

그리고 백군의 장래를 격려하고 그의 천진한 예술을 감상하자는 의미로 독주회가 잇기전날밤 三十一일 오후六시 화신식당(和信食堂)에서 백군 …

長霖繼續되어 東海는不漁로呑淚

최근에는 한동도 안잡혀 農村엔歡喜, 漁村선愁雲

【咸興】 농촌에서 애써 기다리는 보람이 잇어 전후 五, 六일간에 나볼을 통하야 백미리(粍)이상의 강우가 잇어 함남의 농작은 완전이제 당분간 한발의 염려는 해소되고 二十八일부터는 개이기 시작하야 농촌의 근심도 적이 진정되어 가고 잇거니와 동해 어민들이 주소 一념으로 기다리는 정어리(鰮魚)의 무리는 어느방면으로 떠도라갓는지? 최근 一주일간에는 수백어선이 바다를 이(虱)잡드시 엇으되 한동도 잡지 못하고 빈배만 해안에 오락가락하고잇으니 동해어민들의 초조는 푸른바다속의 일이니 어찌 조급하게 기다리지 않을수야 잇으랴? 마는 바다속을 뒤저서 생게의 대본을 삼는 어민들이라! 게절적으로 잡히는 여러가지 고기로써 그럴싸 어가거늘 정어리의 잡히시기가 늦어저도 작년의 四분一밖에 되지 안는 四만여톤의 수양고밖에 없는 형편이니 온유공장이 휴업하고 노동자가 실직하고 어민들이 초조하고 어촌은 한산하야 피폐의 도정을 밟고잇으니 요지는 해갈하엿다고 농민들의 환희의소리를 부르고 잇으니 한쪽아래에서 살면서 또한 한거레로 어민들의 근심과 걱정은 입이 심하여 가고잇다 한다.

溺水中의少年을 消防手가救出

【鏡城】 물에빠진 소년의 위급을 용감히 구출한 소방수의 미행! 지난 二十三일 오후四시경 삭주군 외남면 대관동(朔州郡 外南面 大館洞)입구 대령강(大寧江)에서 … 二남 인철(仁喆)(七)이가 고무풍선을 타고 수영하다가 그만 잘못되어 빠진 것을 대관삼림보호구(大館森林保護區)근무 이근국(李根國)씨가 구출코저 급히 뛰어 들엇으나 역시 수영에 익지 못하야 그만 가 … 명의 구조를 받엇다는바 一반부민은 전기 소방수의 미행을 칭송하고 잇다 한다.

火藥爆發로 坑夫二名死傷

◇창성 대유동 금광에서 一名死亡、一名重傷

【新義州】 二十七일 저녁六시十五분쯤 평북 창성군동창면 대유동(昌城郡東倉面 大楡洞)광산제五구항내에서 경부 유응락(劉應洛)(二九)은 "다이나마이트"를 꺼내고저 "가테라"의 불이 그화약에 인화되어 "다이나마이트"二十一개, 뇌관十개, 도화선十二척이 한꺼번에 폭발하야 유는 즉사하고 十五척쯤 떨어져잇든 경부 양윤득(梁尹得)(二十)은 얼굴에 중상을 입엇다.

晚時之嘆不免이나 田穀豊作豫想

永興地方降雨充足

【永興】 영흥지방은 오랫동안의 가물로 농작에대한 피해가 막대하다함은 누차보도하바어니와 다행히 지난二十五일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二十八일 아츰까지 계속하엿고 우량도 흡족하야 만시의탄은 미면이나 전곡(田穀)만은 풍작을 예상한다고 한다. 그러고 미이앙답도 이번비로 겨우이앙은 계속하고잇으나 그러나 시기가 너무늦어서 별로 희망이 없다고 한다.

清川江增水로 价川線이不通

【安州】 근일 계속하야 나린비는 저덥간에 흡족한 정도를 지나 청천강은 최저로 감수되엇든 평상시수준에서 약四메톨이나 증수되어 경의지선인 개천선(价川線)이 불통되며 一시는 교통이두절되어잇는 상태이엇다고 한다.

南浦體育會 對抗蹴球盛況

【鎭南浦】 기보한바 진남포체육회(鎭南浦體育會)사대사업(四大事業)의 하나인 동리대항축구대회(洞里對抗蹴球大會)는 지난二十六일에 정대로 거행하엿는데 참가팀은 … 기에잇어서는 기어코 질수없다는 … 운동정신이며 그리고도 운동도덕에 벗어나는 행동도없이 회를거듭할수록 연장또연장하는 … 으로 동일오후八시경에 원만무사히 마추엇는데 신진선수로만 조직된 신흥리단(新興里團)이 우승하엿다 한다.

春夏鰯大凶으로 當業者大打擊

六月中漁獲一割五分에不過 今後에도絶望視되어

【元山】 하절고간기는 요지에만 불경기가 습래하는것이아니고 언제나 변함없는 바다에도 불경기가 습래하야 목하 원산(元山)어항에는 一반잡어도 불어상태에잇어서 하절어획은 절망시되어 현재 一일평균 八, 九백원의 수양고밖에 없다고하며 그리고 예년같으면 함남도연안에서 六월 一개월간에만 十二만톤(噸)이나 어획되든것이 금년어획은 원산수산시험장(元山水產試驗場)조사통계를 보다면 二할五부에 불과한 三만톤에 불과한 현상인데 금년은 기온(氣溫)관계로 봄"정어리"회유기에 냉수대가 … 정어리무리가 함남북연안에 들어오지못하야 어획이 전무상태에잇어 一반당업자와 온유비(鰮油肥)공장업자가 대타격을받는가운데 하절"정어리"역시 성어기가지낫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에는 전혀입항이없다는데 금년 하절 정어리도 확실히 비관이라하야 一반관계업자는 매낭패중에잇다 한다.

龍洞貧民六十戶에 突然撤去를强要

地主의 承諾없이 使用햇다고 五百窮民의死活問題

【元山】 도시가 선편의 발전을 따라 나날이 증가되는 세궁민들은 요사이에 와서는 … 더욱 처참한 현상을 나타내이고잇는데 六十여호에 四백五十인이나 되는 세궁민들은 시내용동(龍洞)남산밑에 잇는 청부업자 간조(間組)소유지에 간신히 一간의 집을 짓고 살아오든바 돌연 지주측에서는 六十호주에게 四,五일내로 건물을 철거하라고 경찰당국에 의뢰하엿다는데 지주측은 四,五일안으로 철거치안으면 집에불이라도 질르겟다고 위협함이는 一방 법석이며 이문제는 一정한바의 제재를 받게 되엿는데 이주민 전부는 한산노동자로서 하로버러 하로지내는 극빈자로서 … 집세가 폭등되어 세방을 얻을라면 三, 四개월이나 선금을 요하며 그래도 집을 얻을수가 없는 현상이어서 더욱 그와같은 극빈자들은 생각조차못하게 되어 지주와 승낙할도 없이 간단히 一간의 집을 짓게 된것이 하나 되엇다는데 금은 六十호나 되어 지주는 강경히 나가므로 이문제는 五백 빈민의 사활문제로 어떠게 귀결될른지 一대 사회문제를 야기할것이라고 한다.

外金剛에서 宗教敎育大會

백여회원참집리에개회 各種議案을討議

【外金剛】 감리회제六회하기종교교육대회(監理敎 第六回夏期宗敎敎育大會)는 예정과같이 지난二十八일 오후九시부터 기독교수양관에서 부회장 정춘수(鄭春洙)목사가 승좌하야 개회하엿는데 회원은 백여명에 달하며 앞으로 순서는 다음과 같다 한다.

一、主日學校幼年科
一、主日學校靑少年科
一、主日學校壯年科
一、엡웟會科
一、特別講演
一、音樂大會

霖雨繼續으로 交通一時杜絶

판명된 손해는 별로없이 앞으로는水害를念慮

【海州】 황해도 一대에는 二十四일 오전三시부터 내리기 시작한비는 계속하야 二十七일 정오까지 一백十五미리를 계산하게 되엇으며 이로인하야 一시는 각처의 교통까지 두절되엇는바 二十七일 오후四시까지에는 모두가 전과같이 복구되엇다 한다. 별반손해는 아직까지 없으나 계속하야 내리고 있는 비는 앞으로 수해가 잇을른지 지금은 우려하고 잇다. 두절되엇든 곳은 다음과 같다.

海州, 沙里院間 海州, 信川間 海州、瓮津間 海州、苔灘間 長淵과 夢金浦間 以上自動車不通 黃海線 … 不通

稅務署新築期成會

【江界】 강계 세무서(江界稅務署)는 설립이래 강계군청사의 一부를 대용하여 오든바 청사 협착하고 항상불편을 느끼고 잇든바 세무서당국급 지방인사는 빨리 신청사건축을 희망하여 오든중 지난 二十五일 강계읍내 유지十여명이 강계면회의실에 모히어 세무서신축기성회를 조직하고 총예산二만五천원중 七천원만은 지방유지급 광산가에서 모집키로 하고 명년에는 꼭 신축하기로 결의하고 산회하엿다고 한다.

消息

◎關口聰氏(平安北道內務部長) 新任人事次 二十八日 本社新義州支局來訪

會合

◎宜川留學生會 七月三十日午後一時 宜川會館에서開催

瑣信

● 青丹 延白郡海城面 富士里 朴日範은 西鮮漁業會社青丹變電所에서 避雷타가 感電되어 卽死。

● 牡丹江 南牡丹江―掖河間의 列車回數를 每日六回로 增加。

● 端川 端川繁榮會에서는 去廿七日 郡廳第二會議室에서 定期總會를 開催。

● 安州 朝鮮製紙會社安州出張員이 許文을 받고 先金을 要求하는者가 橫行。

● 吉州 旱魃로 騷動中인 吉州에도 一滴千金의 喜雨가 沛然하야 人心은 緩和。

新東亞

涼味넘치는 趣味記事滿載! 八月號 發賣中

旅行하실때 避暑地에서 꼭잇서야할唯一한親舊입니다 直速注文하십시오

誌代三十錢(送料二錢)

發行所 新東亞社 京城府光化門通 振替京城一四五〇〇番

新東亞 八月號內容

夏期休暇를살려用하라(卷頭言)……極熊
聖將乙支文德公……朴魯哲
新羅鄉歌(盲兒得眼歌)……劉昌宣
朝鮮各道民俗概觀(平安道篇)……宋錫夏
西京地名考 二。三……梁柱東
京城의今昔……沙雲生
꼬리끼의生涯와作品……韓雪野
莊子時代의生物進化論……胡適作 洪性翰
D・H・로렌스論(1)……金永石

內外時事
不安한歐洲情勢……高永煥
中國과阿片問題……丁來東
米大統領選擧戰……洪翼範
내地方話題……咸興 李舜基 水原 一記者
統計室……
스포―츠뉴―스 國際뉴―스 世界鳥瞰……小石生

山水와避暑
나와金剛山……卞榮晩
昆明湖에남은느낌……李圭鳳
洲江畔에남은追憶……金在殷
追憶에남은湖水의反射……金永義
그리운太平湖……丁山木
人物中心의海水浴場風景……一松生
明沙十里의그밤……毛允淑
白沙場의그때……李雲谷
바다가에모래城을쌓던때……韓仁澤
沙場의感想……九飛生
知名人士의避暑플랜

講座와學生
結婚前子女指導策……金允經
手形及小切手의發行……崔泰永
盛夏衛生……金鳴善
洪吉童傳研究……金台俊
經濟解說……張德七
昆虫採集……
어린분水泳할줄아십니까……
歸鄉하는學生諸君에게……
日本最初留學生의洋行奇譚……
農民學院經營과指導……
中國農村의現狀……

短評
時事短評……
壽壇寸評……
文人短評……
國際寸評……
文壇散筆……金文輯
現語解題……李海客

特別讀物
奇怪한遺言狀(探偵小說)……白齋民
史義奇葉……
世情에느낀堂堂將軍(野談)……張龍瑞
素服입은靈魂(傳說)……雲林山人
鍊龍窟의神秘境(紀行)……

隨筆・短文
國際여름밤의狂想曲(上海의밤)(哈爾賓의밤)……金光洲
조고만한悲劇……崔永煥
나의私生活에서……韓基岳
반가운傾向과消息……趙憲泳
잘때에電燈을……宋錫夏
太平津과싸운作家列傳……李克魯
作家의生活記錄(金浦에서)(虛無感을느끼든그때)……三步生
文壇放送塔……林和 月坡

詩
광바다가에서이……金尙鎔
青春愛曲……金東鳴
山男(小說)……閔丙均 姿敬愛

娛樂室
造物主의異變(文畵)……李周洪
맘・부채(畵)……崔永秀
仰天大笑……入選品
이해의달回顧……
新東亞應接室……
編輯餘墨……逸民

ClibPDF - www.fastio.com

應接室

▼問 [illegible]

▽問 [illegible]

▼問 日本內地[illegible] [illegible]

▼問 昨年七月十六日[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紙上病院

귀앓이아파

【문】조금도 다친일은 없는데 [illegible]

【답】[illegible]

얼굴에어루러거

【문】二十二세의 남자이온데 [illegible]

【답】[illegible]

감장제문는?

【문】제는二十세된 남자이온데 [illegible]

【답】특별한 보약을 구하지마시고 [illegible]

말더듬는병

【문】저는 금년二十[illegible]세의청년 [illegible]

【답】자신준비는 너무과한니다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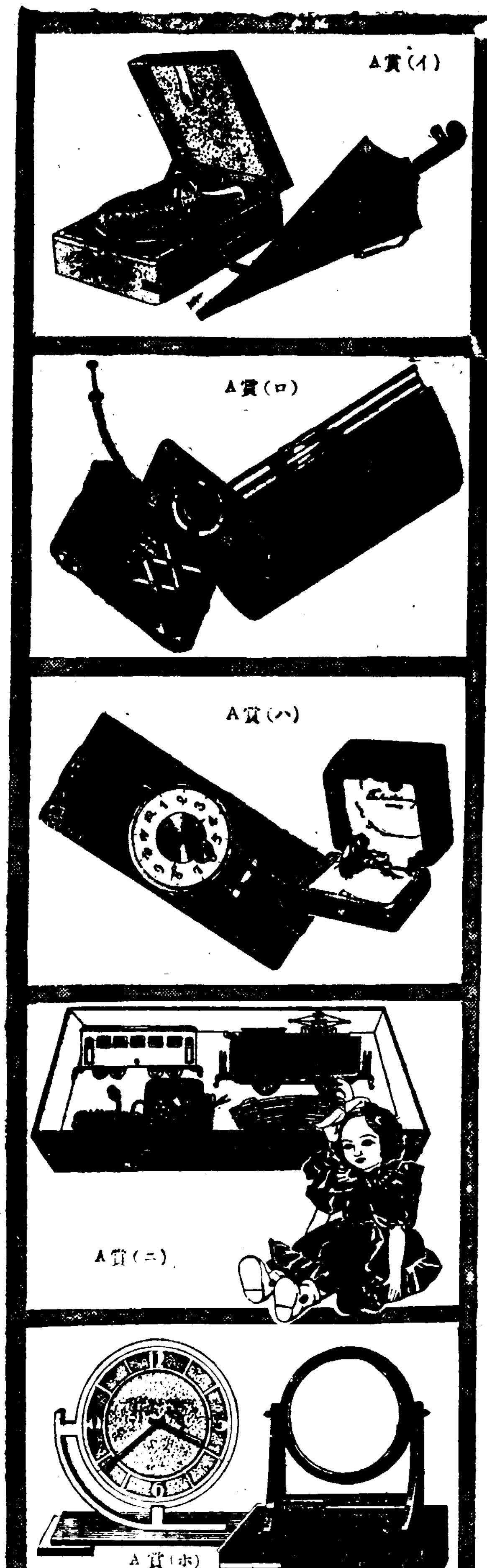
馬持室　附十錢

[illegible]

ライオン齒磨

景品が二つ一緒に當る

アベック・サービス



齒磨로健康！外函으로福運！

清掃効果는絶對的、齒牙를爲하야는優秀無比、어떠한家庭에고없어서는안될……ライオン齒磨를、이機會에百퍼ー센트의興味로써、꼭사주시기를바랍니다

A賞

イ　ポータブル蓄音機／婦人持洋傘　200名樣

ロ　パーレツト寫眞機／ハンドバツグ　200名樣

ハ　寶石入指輪／クローム側腕時計　200名樣

ニ　電氣機關車／テンプル人形　200名樣

ホ　美術置時計／鏡台　200名樣

—計 1,000名樣—

B賞

高級萬年筆／シャープペンシル

ジレツト安全剃刀／ヒゲ剃附屬具

—計 2,000名樣—

C賞

寫眞アルバム／紙切ナイフ

—計 5,000名樣—

D賞

ライオン德用石鹼／上等タオル

—計 10,000名樣—

正規應募하신분께빠지않고粗景呈上！又抽籤으로所定의景品을進呈!!

應募用紙 ライオン齒磨와ライオン齒刷毛두가지의能書（外函中에包在한印刷物）에外函을添付하야、二個로써一組로함（外函中에包在한印刷物）
注意 外函의添付없는것은無効。左記中아모것이나二個一組로하여도可함
一、ライオン煉齒磨チューブ入家庭用
二、ライオン煉齒磨チューブ入大型
三、ライオン煉齒磨チューブ入中型（二個로써外函一個로看做함、各種封書）
四、潤製ライオン齒磨
五、ライオン齒ブラシ一號形、二號形、三號形、（外函의上下耳를切去하고能書를添付함일）

쓰는法 二個一組로하야兩方의外函에左의三項目을쓰시오
一、希望A賞한가지（イ면은イ、ロ면은ロ라쓸일）
二、住所 姓名
三、購讀新聞名

보내는法 一組마다封筒에너허十五錢까지의切手（十五錢又는그以上마다三錢）를붙여서보내시오（郵稅不足은接受치안습니다）그것을사신販賣店에서도取次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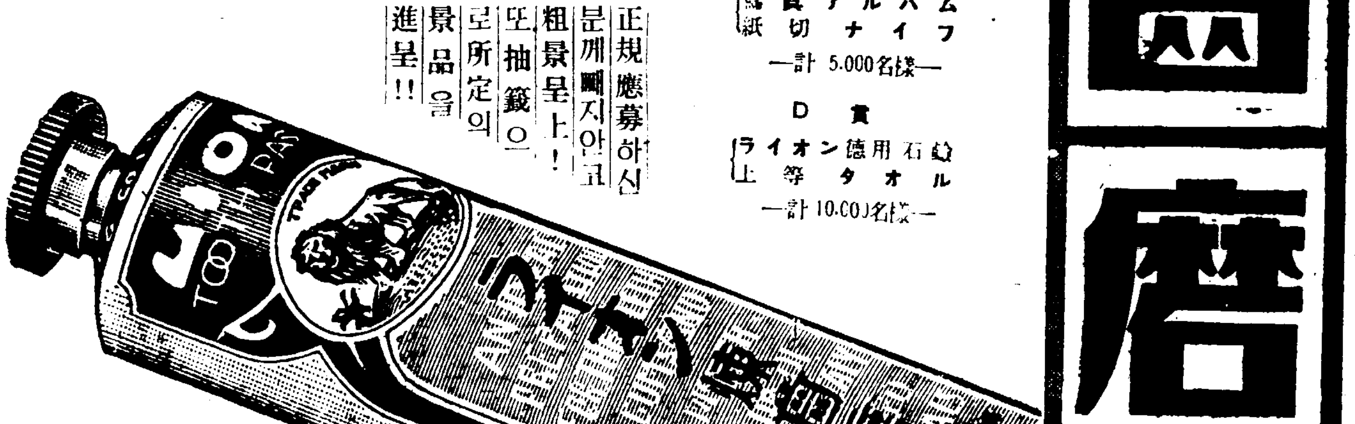
보낼데 左記中어데거나可함 東京市本所區[illegible]、又는大阪市東區備後町三丁目 ライオン齒磨本舖アベック、サービス係

締切 昭和十一年十月三十一日까지에本舖에到着하는것。

其他 [illegible]

抽籤方法 所轄警察官立會下에嚴正한抽籤을行하야、A는[illegible]抽籤하고、B、C、D는A에當籤못된것中에서順次抽籤함。

賞籤發表 昭和十一年十一月下旬、主要新聞紙上에A賞當籤者壹千名을發表、其他는景品의發送으로써此에代함



ライオン齒磨本舖　株式會社 小林商店

東京・大阪・名古屋

139—11.7

림질근치약 부라온銀 겐고—루

부부협력하여 곳치자

약한방울로 단二分間에 효과가낫타나는 약이니 림상치료에는 물론이요 자택에서도 단시일안에 손쉽게근치되는약입니다

더기운 햇빗이 내려쪼이는요새에는 몸이든든하신분이라도 병에걸니기쉬운때이니 더구나 림질 혹은 부인병으로 고통을 받으시는분에게는 더위로 봄은 더욱 쉬약되며 병세도 역승 더 중한으로 되시기쉬운때입니다

흔이 사람의 인정으로 전염되야 발병될당시에는 고통과 번민에 못이어 히동지동하시며 치료법도 이것저것을 급나 시기시 세속하시나 그 치료법과 치료약의 선택을 잘못하신줄은 몰으시고 다만 림질의 특증으로 중간에좀 증세가 개이시면 옳치! 다아 낫고나 하시고 치료를 등한히 하시여시 매년 이때면 다시금 재반하야 고통을받기시는분이 얼마나 만습니까!?

림질은 걸닌지 얼마안되야 만성증으로 병세가 변하나니 그러케심하든 고통도개이고 낫은듯이 보인다

흔이 이러때에 모든분은 一때까지 써오시든 내부약(환약、가루약、화야 물약、膠球) 등으로 다아 낫은줄아시는것이 보통이나 사실에잇시서는 먹는약(內服藥)으로는 림질과 부인병은 절대로 낫지안는다는것이 세계각국의 전문대가의 림상보고(臨床報告)가 증명하고잇습니다

즉 림질이 만성(慢性)이되야 병세가 일시적 개일때는 병균(病菌)은 더욱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무서운 해독을 일으키고 잇는때이니 그엇지 치료법과 치료약의 선택(選擇)을 등한히 할수잇으리요가!

남편에게 림질기운이잇스면 반드시 부인의게 전염되나니 부부협력하시사·학설상 실제상 제일조혼약으로 하로밧비 근치식혀 버립시다……

이런 비참한 일이 또어데 잇겟습니까? 자기만 걸녀서 신세를 딱하게하고 고통을 낫가는습반 알잇든것이 아무 죄업는 부녀자께까지 전염을 식혀서무서운 부인병을 알케만드니 그엇지 자기집안을 위하야 아니 자기민족의 발전을위하야 속히 곳처버리시고건강에넘치는 일군이되서야할것이 아닙니까!

먹는약(內服藥)으로는 絶對(절대)로 根治(근치)가못되고곳再發(재발)된다

「림질을 엇더케하면 속히 곳칠수잇습가」하는 문제는 고통을받으시는환자뿐만 아니라 세계 전문의학자들께도 큰연구거리엇으나 독일(獨逸)의 세계적 성병대가「와렌진」과「쉬타인」兩博士가 재래의 치림의학계에 일대경종을 울니게된 新學說——즉「림질치료에 재래에는 먹는약을 써왓스나 먹는약으로는 결코 림질은 근치가 못되고 오즘속(尿中)에 림균이 오히려늘어가나니 반듯이 환부에 약을 직접쓰는치료법으로써(殺菌) 라야만 근치할수잇다」라는 림상보고(臨床報告)이례 세계각국의 전문가들은 그學說에따라 림질근치약의발명연구를 거듭하든중 동양서 제일큰 청루(靑樓) 동경길원유곽안에잇는 경시청병원 길원병원장으로 게시든·좌동영선생이 재임 십수년동안의 실지경험과 신학설연구로 림질경험적 치료제「부라온銀겐고—루」라는 獨特한局所藥劑를 발명하시사 세계의학계에 一大경탄으로 환영을밧게되엿습니다

즉 유곽병원에서 수만의 림질환자를 매일진찰하시는동안에 신학설과 약리학연구로 가장 新學說과 림상치료에 합당한것이 발명된것임으로 무슨약보다도 단시일안에 림질을 근치식혀서 환자제씨를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고통에서 속히 버서나게 만들어줍니다 더구나 병원치료뿐만아니라 일반가정에서도 아무염려업이 간단히 사용하야 속히 근치되는약입니다

내복약 은 엇재서 림질을 못곳치느냐하면——첨단 치료법을 몰낫을時代에는 허는수없이 써왓섯으나 먹는약인만큼 위장을 경유하야 약한기운으로 환부에 작용하며 다소간 듯는의올 석그면 그약의성질상 반듯이 위장에 속병을 남겨주고 병세를 일시적 안정식히든가 잠복케 만드는데 지나지안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림균은 뇨도조식심부(尿道組織深部) 또는 자궁(子宮)속에 속깊이 뿌리백혀잇는데 이기운이 위장을통하야 그곳의병균을 얼마나 죽일수잇겟으며 또한 림균이 죽을만한 强한약을 석그면 위장과 오즘보가 녹아버려서 오줌이 아니나오게되니 다만 내복약은 어느정도의 앞옴을 다스르든가 또는 오줌을잘 나오게할뿐임으로 그와같이 오랜기한을 두고 올하여도 조금도낫지를안코 늘재발하든것이엇습니다

그외의治療法으로는 세척법(洗滌法)이잇스나 이것은 익숙한 전문의사의 림상치료이외에는 위험하고 주사료법(注射療法)은 병발중에는 특효가 잇스나 뇨도림질에는 그것타는 효과가 적으며 그외에 가루약을 「예교」를 읽펴서 석양가지같이 반듯어 딱딱한것을 뇨도속에넛는 **挿入劑**(삽입제)는 험집이 생기고 진불는 뇨도칙막에 억지로 넛는관계로 그고통은 더말할것도 업스며 더구나 약가루가 새녹기도전에 오줌에 써서 내려지기쉬웁으로 별다른 효력을 엇지못하고 잇습니다

그외에 온천(溫泉療法)、전기료법(電氣療法) 등이잇스나 아지까지에는 특수한 효험을 보지못하고 잇는모양입니다

직접 患部에 藥한방울을 집어너서 속속드리뿌리백힌림균을 집어내듯이 단시일에 根治식히는부라온銀의偉効

남의약을 억설로 중상하거나 욕하는바가 아니오나 藥만은 조혼 것으로 곳치시는것이 속히 낫게됨으로 환자의한분이라도 좋은약으로 곳처서 속히 낫기를 바라는 本劑가「림질근치약은 겐고—루뿐이다」라고 고창하고 추천하는바이오니 정당치못한 치료약으로 일생의 고질을 만들지마시고 속히 本劑로 치료하여주시사 根治하시고 그것뿐을 널니 선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독신남녀때는 물론이요 가정생활하시는분은 꼭부부협력하여서 겐고—루로 곳처주시기바라오며 특이 부인께서는「와세돈球」를 병용하시면더욱속합니다

림질자택치료서진정

겐고—루에는 藥價는같으나 병중세에따라 〇號(初感染用) 一號(급성용) 二號(만성용) 三號(부인용)의 구별이잇사오니 병세를 조선문으로 통지하시면 송료부담으로송약합니다

겐고—루의藥價

보급약 (초감염용 급성용 만성용 부인용) 一圓九十錢

二五瓦入(約十七日量)……三圓八十錢

五〇瓦入(約二十日量)……七圓

八〇瓦入(約五十七日量)……十圓

—注意— 전염된지七日이내에는 〇號(초감염용)를 쓰시면 충분하나 좀 이상하실때에는 一號(급성용)를 쓰시면 그만이고 急性症인분(올든지는지 廿日頃까지)은 〇號를쓰시고 一號를쓰시면 만성중으로 되지안으며 慢性症인분(올든지 一個月이상)은 처음에 一號를쓰시고 二號를게속하야 쓰시면 단시일안에 오줌이 맑거지며아조 근치가되여버립니다

전동경 길원유곽 길원병원장

좌동영선생 발명창제

K—138

쓰는약으로 자택에서라도 간단히 부인병이근치된다

帝大病院(제대병원)、赤十字病院(적십자병원)에서

부인병(자궁병)은 가정생활하시는분은 물론이고 처녀시대에도 걸니는것이니 자기가 짐작으로 알수잇는 증세를 말삼드리자면——두통、현기、상기증이심하거나——월경이고르지못하고 월경때면 압케되고——대하증(소위 냉증)이 흘으게되야 써이 돗고 냄새가나든가——아래배나 허리 팔다리가쑤시고 앞우며——화색이 좃치못하고——오좀이 자자지며 누어도 남은것같으고 오좀눌때 쓰리고 앞우거나——국부가 붓고 가렵고 앞운것입니다

그러나 흔이 녀자면 모도 그런증세가 잇거니하시고 병세를 더욱 심하게만드는수가 만흐니 전문의사의 진찰을 바드시거나 또는 자택에서라도 유명한병원의치료와 똑같은치료를 할수잇는 부인병약「와세돈球」로 곳치시면 곳 낫게됩니다。

흔이 지금까지에는 부인병치료에 탕약 환약 가루약같은 내복약(內服藥)을 복약하섯스나 부인병은 결코 내복약으로는낫지안으며 다만 몸을 뜻뜻하게하든가 변듯이 좃케될뿐이고 조금도 자궁속에 박혀잇는 병균에게는 아무 작용을못함으로 내복약을 아모리 장구한시일을두고먹어도 조금도낫지안으며 더구나 醫學上 合理된치료법인 질구(膣球=넛는약)일지라도 재래의것은 조혼것이적어서 효과를 엇지못하엿습니다。

즉 한개를가지고 몇칠식쓰든가 또는 잘녹지를안코 녹어도찌거기가남어서 나오든가 다만 대하뿐만 빨아드려서 병세를더욱 심하게하거나 냄새가나고 거북하며 흘러나와 속옷을드러피며 남까지 압게되야 환자에게 실증을 주든것이엇습니다。

그에비하야「와세돈球」는 천위잇는大病院에서 수많은부인병환자를 구원하고잇는약으로 약효가 훌륭한뿐만아니라 모양은이고 향기로운냄새와함께 한두번사용에 병세가 어름녹듯이 낫게되는 약입니다 그리하야 여러가지 사정으로 병원에못가시는분어라도 집에서 남몰래 똑같은치료를 할수잇으며 약갑도 실비이니 부인병으로 고통받으시는분은 조금도주저마시고「와세돈球」를시용하여보시사 명랑한 건강에넘치는 近代女性美를 차저주십시요。

와세도球를사용하야 만흔患者를구원하고잇는 有名한병원一部

東京帝大附屬病院 京都帝大附屬病院 九州帝大附屬病院 東北帝大附屬病院 長崎醫大附屬病院 日本醫大附屬病院 日本赤十字病院 東京市立病院 大阪府立病院 名古屋市立病院 救世軍病院 東京聖路加病院

부인병근치약 와세돈球 가약

十二球入……二圓廿錢

廿四球入……三圓卅錢

卅六球入……四圓四十錢

病院用 一四四球入……十二圓

어느가정에도 꼭 한권식필요한 조선국문으로쓴가정위생보감

醫學博士 河合 先生 著

女性의新生理學을 통지하시는대로거저드림니다

東京市芝區通新町十三 **日東製藥合名會社** 振替東京三一九四三

京城 新井藥房·木村藥房 釜山 大衆南海堂

婦人病最新藥 와세돈球

黎明期 (59)

—第二部 都邑篇—

張赫宙 作
鄭玄雄 畵

마 금 (九)

옥예는 주인의 청을 뿌리칠수는 없어 二十五원이라두 [illegible]
하고 다시 들엇다.
「글쎄 그거라도 잇스면 되지 되어 자 어서 내어다고。마당에서 사람을 보기에 얼마나 창피하지 난 못하겟서」
발을 동동 굴리며 솔라대엇다。
옥예는 주머니에든 돈을 내엇다。
주인여자는 답을 내어 옥예의 손을 더러다 보고 잇섯다。
옥예는
「새어버서요。돈이나 만든지」
하고 내어주고나니 어째 보배를 일흔것같이 섭섭해지는것이엇다。
주인 여자는
「아이구 고마워라! 인제 살엇나보다」
하고 까불라그리며 밖에나가는것이엇다。
옥예는 그어든날 아침부터 주인여자가 돌아올가고 기대리엇다。그러나 주인은 조금도 그런 안색을보이지 아니하엇다。
낫이되엇다。역시 아무 소식이 업다。
저녁때가 지나니 주인여자는 옷을 가라입고 어데인지 나가버리엇다。
옥예! 돈받으러가는구나! 하고 옥예는 반기엇으나 해가 저도 주인은 돌아오지아니하엇다。
「어델가구 여태 아니올까?」
옥예는 자부럽게 붙엇다。
「글쎄 노름하러 가지엇서?」
「노름?」
옥예는 뜻하지 아니하든 말에 감짝 놀랏다。
「어젯어를 때를 지어가지고 나갓는데 밤이 깁어서야 돌아올겁니다 술이 취해가지고 오거던 삼사고 잇서야지 잠못들이다가는큰코 다쳐 머리칼를 머리에 붙처두고 싶거던 잠자고 잇게」
「난 돈 받으러 갓다구」
「돈을?」
「돈 구경으로……」
「아이구 참!」
자부는 어리서다는듯이
「돈을 무슨 돈? 설사 돈받을것이 잇다하드라도…… 잇기야 잇화 잇지。그러나 누가 주어야 받지。수상한집 버칩으로 받어내어?」
「……」
옥예는 가슴이 덜컥내려 앉엇다
「속엇구나! 속엇구나!」하는생각이 머리를 두다리고 어둡게 하엿다。

옥예는 이를 꽉 다물엇다。[illegible]

現代와建築 (2)

建築의三要件

◇…… 朴吉龍

이것을세가지로보면
一、力學的——構造的
二、物理學的——
三、形態學的——美學的
여기에는統計學的、經濟學的、社會學的科學도 包含된다
이中에도 力學的理論은 建築構造學的으로보아 一定한體系를 가[illegible]

[illegible]

科學

몇千年뒤에나解決? 疑問에싸인天體

日食은天上의實驗室 (上)

天文學者는 日蝕이라고하면 [illegible]

[illegible]

寃死偶證

「白頭山石[illegible]」

[illegible]

(東雲)

米英兩國人의差異

메켄氏의學說

[illegible]

病의原因은食物

[illegible]

鷄卵의鑑定器

[illegible]

心臟의聽診器

[illegible]

漢詩投稿歡迎

題仁意
朗 琅 瓶

[illegible]

仁丹

胃腸의增强藥에는

健康은먼저胃腸의强壯으로、仁丹을常用하시면胃腸의機能이正規的이되게하고榮養을促進하야顯著히活潑해저서潑剌한生活力을充溢케한다、特히胃腸病者에게는없지못할持藥。

口中의芳薰料에는

口臭나는것은致命的인品格의破綻이된다。仁丹을口中에너흐면口邊에는늘芳香이떠돌고口熱을去하며聲音을곱게하고口腔의殺菌을하야自他共히참으로淸爽한氣分을享樂한다。

銀粒仁丹

仁丹主劑外에高貴藥人蔘과비타민B를倍加特製하야서好評이益益더하는

傳染病豫防

炎暑를當하야、窒扶斯、虎列剌等傳染病의猖獗季로들어갓나이다、衛生施設에一段의不便잇음을感하시거든益益各自의自衛豫防의必要를切實히하는바입니다。
仁丹은胃腸을强健케하고榮養吸收를充分케하야根底로부터强健體를만들기를目的하고此等傳染病에對한抵抗力을기르기에第一適切합니다。

咽喉衛生

夏節의半島特有한乾燥하기쉬운空氣와、또猛烈한塵風에咽喉衛生의不完全으로마침내는本格的인呼吸器病이되게되는例가特別히만타。仁丹은이點에너코보면第一로咽喉衛生을完全케하는藥效를더구나爽快感中에遺憾없이發揮하야殺菌에、淸涼에더말할것없는懷中必携藥

銀粒仁丹小賣定價
[illegible]

仁丹本舖·大阪 森下博營業所

ClibPDF - www.fastio.com